

제11회 세계 에이즈의 날 종합행사 성료

결의문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선량한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인류의 재앙인 에이즈는 급속도로 지구상에 만연하여 특히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최대의 희생자도 청소년이다.

이에 우리는 에이즈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드는 데 관심이 큼을 인정하고 건강과 인권을 중진함에 있어 변화의 힘이 되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청소년이 에이즈예방운동에 자진 참여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능력과 책임감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개발하도록 적극 도와 줄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이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1998년 12월 1일

제11회 세계에이즈의 날 종합행사 참석자일동

본회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12월1일 '제11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UNAIDS가 제정한 "변화를 위한 힘 - 젊은이와 함께 하는 세계 에이즈 예방운동(Force for Change - World AIDS Campaign with Young People)"이란 주제로 김찬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UNDP추한대표 등 각계인사 및 40여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에이즈 예방 및 홍보를 위한 대회와 전시회 등 세계 에이즈의 날 종합행사를 실시했다.

■ 대회식

본회 정광모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 김찬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 김정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의 격려사 등이 있었다.

■ 패널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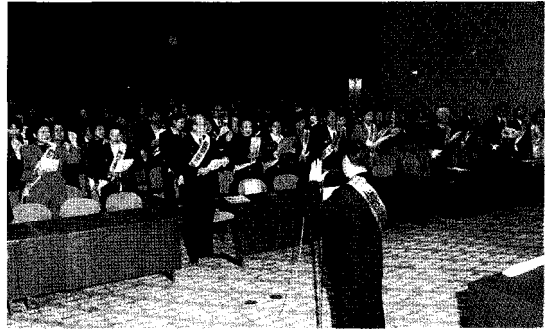
'청소년의 성(性)문제와 에이즈'라는 주제로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에이즈 예방대책(전병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방역과장), ▲청소년의 성(性)문제와 에이즈(민경숙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청소년의 성과 에이즈 : 예방적 관심(김병석 청소년대화의광장 상담실장), ▲에이즈와 청소년 그리고 동성애(한종주 한겨레신문 민권사회2부장) 등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열린 패널토의와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립국악고등학교생들의 판소리 특별부대가 있었다.

■ 가두행진 및 패널 전시회

가두행진과 시청지하도에서 에이즈예방 계몽교육 패널전시회 테이프커팅을 하였으며 전시회는 3일간 열렸다.



▲양평중학교 패널전시회



▲ 제1회 세계 에이즈의 날 종합행사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유주영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과 참석자들

중, 고교 33개교 5만3천명 학생과 교직원 전시회 관람

본회에서는 지난 해 8월 25일 동도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19일 공릉중학교를 끝으로 서울시내 중, 고교 33개교를 순회하며 AIDS예방 패널 전시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5만3천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관람했다.

학생들이 AIDS의 전파경로, 증상, 검사, 치료, 예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진 및 그림 등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된 본 전시회는 그 동안 교직원과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서 성공리에 전시되었다.

UNDP필리핀 주재 에이즈사업 책임자 본회 방문

지난 1월 8일 UNDP필리핀 주재 에이즈사업 책임자(Dr.Vincent Sala)가 NGO 인턴쉽 교환사업의 설명과 참가, NGO선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본회 사무국을 방문했다. 이번 협의회는 UNDP자문관, 이영숙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이창우 사무국장, 이상은 홍보교육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단기NGO인턴쉽 교환 프로그램은 중국과 몽고, 한국에서 두 명의 참가자가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여 HIV/AIDS 감염자와 윤락업 종사자, 동성애자, 여성, 젊은이 등 주로 약소, 소외 그룹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필리핀의 NGO들과 인턴쉽을 교환하는 것이다. 또한 1월 7일에는 UNDP한국사무소에서 필리핀의 HIV/AIDS 현황과 NGO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청소년의 에이즈와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설문조사 완료

본회에서는 지난 8월 15일 동도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19일 공릉중학교까지 서울시내 33개 중고교를 순회하는 AIDS예방패널전시회와 더불어 에이즈와 성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지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에이즈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이 설문지는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성과 에이즈,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태도까지 조사하였다. 지난해 하반기중 에이즈 예방패널전시회를 실시한 33개 학교중에서 1, 2, 3 학년별로 30여명 정도씩 샘플반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이 분석 되는대로 그 결과를 청소년의 에이즈 홍보교육과 예방 대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1998년도 정기총회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과



▲1998년도 정기총회

지난 해 12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9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97년도 회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과, '98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총 3억1천9백6십9만원의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임원개선에는 정광모 회장과 최강원 부회장을 유임시키고 박양실 부회장을 새로 선임했다. 한편 이사 및 감사선임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정광모 회장 유임, 부회장에는 박양실, 최강원 박사 선임

정광모 회장은 언론계 출신 중진으로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을 선도해 왔을 뿐 아니라 YWCA운동과 금연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박양실 부회장은 우리 나라 의학계 중진으로서 여의사회 회장 시절 에이즈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최강원 부회장은 우리 나라 에이즈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사람으로서 에이즈 환자 진료와 연구에 큰 업적을 올리고 있다.



정광모 회장

1929년생/이화여대, 아메리칸대학 수석/현재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제2건국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양실 부회장

1935년생/서울대 의대 졸업/한국여자의사회장, 보건복지부장관 역임/현재 박양실 산부인과의원장



최강원 부회장

1944년생/서울대 의대, 동대학원 졸업/하버드의대 연구원, 대한감염학회장 역임/현재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이상은 주임 국제 연수과정 수료

본회 이상은 주임은 일본에이즈예방재단의 주최로 지난 해 11월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된 '제5차 아시아 에이즈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제 연수'에 참석, 6주간의 코스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연수에는 캄보디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몽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터키 등 15개국에서 21명이 참가하여 동남아시아의 AIDS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기반을 다졌다.

이창우 사무국장 예방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본회 이창우 사무국장이 지난 해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예방관리사업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이창우 사무국장은 94년 협회 창립부터 실무책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 및 상담 실시, 전문상담요원양성 사업, 중간교육자 교육, 각종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 AIDS예방 TV광고 방영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감염자가 연간 1백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월 4일 오전부터 KBS에서 에이즈 예방 TV광고를 방영했다.

이 광고는 향락업소 등지에서 이성과의 성적 접촉을 한 청소년들이 에이즈 검진을 받고 싶어도 신문 노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1월 말까지 총 40회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TV광고가 방영되자 본회에는 평상시보다 ARS 및 상담전화 가 폭주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KBS '영상기록 24시' 제작팀 협회 방문

국내 에이즈 환자 얼굴과 신분을 공개하는 다큐 프로그램인 KBS 2TV '영상기록 병원 24시' 프로그램 제작팀이 지난 해 11월 18일 90년 동성애로 감염자 박○○(남, 26)와 함께 본회를 방문, 본회 예방활동에 대한 이창우 사무국장의 인터뷰와 함께 각종 포스터 등을 촬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9일 방영되었으며 방영후 본회에는 감염자 박○○씨를 돕겠다는 전화와 상담전화 가 쇄도했다.

귀하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98년 11~12월)

김동수 10,000	박내은 10,000	이명운 10,000	전선주 10,000
김동실 10,000	박숙경 10,000	이미경 10,000	정복순 20,000
김명숙 10,000	박인달 10,000	이승기 10,000	정현식 10,000
김진현 20,000	박재영 10,000	아준상 10,000	태상호 10,000
고대익 10,000	서영아 10,000	임창만 10,000	함유식 10,000
고복희 10,000	신송희 10,000	장명익 10,000	허 목 20,000
권차매 10,000	설영애 10,000	장성현 10,000	홍달기 10,000
류춘매 20,000	양태혁 10,000	전경숙 20,000	동강병원 100,000
문경순 10,000	윤성현 2,000	전미자 60,000	